

##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연구로

## 원가절감을 이룩한

# 연환축산



취재 : 최승덕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연구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있는 양돈장이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원주방면으로 3km 정도 달리다 보면, 왼쪽 산 기슭에 아담한 돈사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이곳이 바로 전업농장의 귀감이 될 만한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연환축산(대표 : 이시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307-10)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있는 전국양돈인 생산조절 결의대회에서 「모범양돈농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연환축산은 전업농장중 가장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농장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철저한 기록관리는 농장경영의 첫 걸음

사실, 우리나라의 양돈장은 대부분 기록관리에 소홀하다. 특히, 비육돈만 경영하는 농장은 기록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환축산에 들어서면, “이렇게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는 농장도 있나?”하는 놀라움을 갖게 한다.

사양관리 program, 백신접종 program은 물론, 농장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표가 즐비하게 사무실 벽을 장식하고 있다.

연환축산의 이시찬 사장은

“철저한 기록을 하여야만 농장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한 눈에 알 수 있지요.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고 말하고 “기록에 의한 정확한 진단만이 경영의 합리화와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이룰 수 있다”고 피력하고, 농장경영에 있어서 철저한 기록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사장은 원래 돼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으나, 지난 82년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업종을 검토하던 중, 주변 친지들의 권유와 어려서부터 동경해 오던 추억으로 양돈업에 뛰어들게 되

었다.

양돈업을 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했으나 시작하고 보니 여자로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돈사 건축에서 부터 행정적인 처리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려니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을 믿고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다.

일단, 양돈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경험이 많은 양돈농가를 귀찮아할 정도로 찾아 다녔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발행되는 양돈관계 서적을 무수히 섭렵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힌 후, 실제와 이론을 조화있게 정립하기 위해 직접 사양관리를 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자가 이사장을 처음 보았을 때 양돈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더라도 실제로 관리하는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았으나, 잠시 취재를 하는 동안, 선입견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사장이 양돈을 전공한 사람 보다도 더 해박한 양돈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사안에서 포즈를 취한 이씨산 사장

## 정확한 자가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관리와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의 양돈산업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는 것이 발전을 위한 첩경입니다. 끝없는 연구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사장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항상 연구하며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아무리 우수한 돼지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도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법도 다른 농장에 비하면 원가절감

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자부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사양에 필요한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을 절감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기자가 취재에 앞서, 지난 연말 본회에서 조사한 ▷ 비육돈 원가분석 ▷ 농장 기술분석 등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였는데 11개 농장에서 연환축산의 순위가 두부분 모두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모돈 회전율(2.3회전), 모돈 1두당 연간 육성두수(21.19두), 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18.6두), 비육돈 출하일령(150~155일) 등은 타 농장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었다.



농장관리인들과 돈사앞에서 포조를 취한 이사천사장

## 혈통갱신은 냉동정액 과 자연종부를 병행해서 실시

연환축산은 아직 종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종돈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착실히 다지고 있다.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종부와 병행해서 냉동정액을 도입,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다.

연환축산은 연륜에 비해 많은 기술축적이 이루어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냉동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의 대부분이 인공수정을 이용할 때, 자연종부 때보다 수태율이 떨어져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연환축산은 신기하리 만큼, 수태율 100%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아직 초기이

며 사용한 두수가 크게 많지 않아 객관성을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경이적인 기록임에는 틀림없다.

오랜기간 냉동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농장들도 대부분 50~60%의 수태율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정확도는 가히 초 수준급임에 틀림없다.

인공수정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다. 또한, 복상 산자수도 지금까지의 인공수정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성적인 8~10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이 좋은 성적을 나타낸 비결을 묻자, “냉동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은 수정적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밤중이거나 이른 새벽이라도 수정적기라고 판단될 때는 꼭 실시해야 하지요. 만약 수정적기를 오판하거나

놓치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자의 활력은 온도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사장은 이 두 가지 문제만 잘 해결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수정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연환축산에서도 실시하기 전에는 인공수정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졌었으나, 실시하고 보니 생시체중이 좋고, 균일도가 높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생시체중이 평균 2kg 가까이 되고, 2kg이 넘는 개체도 많아서, 육성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출하일령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론의 정립이 우연이 아님을 금방 알수 있었다. 연환축산의 서고에는 국내의 양돈관계 서적은 물론, 익히 독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PIG International, 養豚界, PIG Farming 등 외국의 서적도 눈에 띄었다.

## AR-P군이 전혀 없는 청정도 유지

이 농장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거의 전 양돈장에 상재화되어 있는 AR-P가 전혀 없다는

## 농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해 비육돈사도 모돈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스트레스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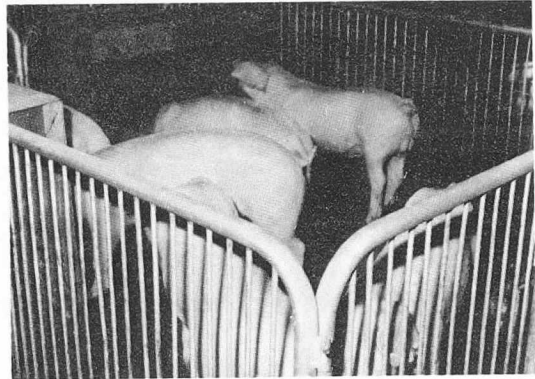
것이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세 번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AR-P 균주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시찬 사장은“우리 농장은 대부분의 농장에서 소홀하게 다루는 비육돈에 대해서도 모돈과 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육돈사가 격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 울타리 내에서의 전염은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며 “농장의 청정화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득도 가져 오게 됩니다”고 강조하며, 돼지 질병의 예방에는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자율적인 생산조절은 양돈인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야

연환축산은 현재, 양돈업계의 최대 현안인 자율적인 생산 조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위의 설득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연환축산은 양돈업 등록을 필한 농장으로 모돈 50두를 등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10%를 스스로 감축하여 지금은 45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3~4두 더 도태시킬 예정입니다. 업계가 어려울 때는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모두가 노력해야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양돈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동지적 유대감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남의 눈치나 보며 「나 하나 썸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 만이라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해야 됩니다.”고 강조하고, “양돈인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결실을 맺어, 불황없는 양돈산업을 이루어지길 간

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시찬씨는 농장관리도 열성적으로 하지만, 협회 활동에도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면서도 협회 일에는 항상 앞장서서 술선수범하는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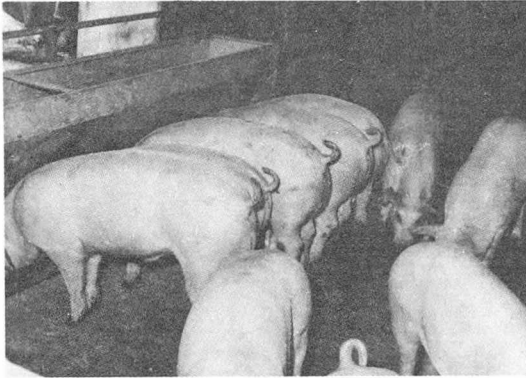
### 양돈인 부인회를 조직하여 협회발전에 기여

특히, 이 사장은 양평지부 양돈인 부인회를 조직하는데 산과역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총무를 맡고 있다.

양평지부 양돈인 부인회가 조직되기 까지는 이 사장의 사심없는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 업계가 어려울때는 다 함께 노력하여야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앞장서서 모돈감축 실시



양돈인 부인회 조직에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선천적으로 일복

을 타고난 여장부로 보였다. 기자는 연환축산을 떠나며, 우리나라 양돈산업에서도 여권 신장이 서서히 이루어짐을 느낄 수 있었으며, 머지않아 연

환축산의 경영비결이 많은 농장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철두철미한 경영방침에 의한 경영이 연환축산을 모범양돈장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모범양돈장중의 모범양돈장이 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연환농장의 이 사장과 농장 관리인들의 눈 빛에서 꼭 무언가를 보여줄 것만 같았다. 머지않은 장래에! ■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태여 무슨글을 보내달라고 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

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와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실패담·임상수기·건의사항·양돈기술상담·세무상담·지회소식 등 어떤 내용이던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 쓸 시간이 없으시다면 본지 기자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혹자는 공식적인 원고청탁이 없어서 원고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아무쪼록 일선 양돈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채택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료를 지불하겠습니다.